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페스 앙상블·에라토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암보, 이제는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②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지난호에 이어) 지난호 기사를 통해 우리는 암보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암보를 해야 효과적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클래식 연주자에게는 필수적인 암보. 탄탄하고 효율적인 암보법과 실제 상황에서의 암보방법을 알아보자.





### 암기법의 다양한 형태들

가장 선명한 암기법은 청각으로부터 오는 기억력이다. 아이들이 노래를 기억하듯, 음의 배열·선율·화성의 움직임 등 스스로가 연주하기 이전에 이 모든 음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암기법은 촉감을 이용한 근육에서 오는 기억력이다. 손가락과 팔 그리고 심지어 다리도 어떤 속도와 어떤 순서에서 이미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알고 있다. 근육은 반복된 움직임에 익숙해져,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전에 지정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순수하게 지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연주자가 곡을 분석해서 얻는 악곡 구조의 암기법과 패턴을 기억하고, 조성과 리듬패턴의 변화와 윤곽을 그리는 암기법이 있다. 드물지만 간혹 시각적인 암기법을 사용해 악보에 그려진 그대로를 머리에 담는 경우도 있다.

이 사진기억법(photographic memory)에 대한 단적인 예들을 소개 한다. 어떤 지휘자들은 수많은 기호를 담은 총보를 기억해낼 수 있다고 한다. 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경악에 금치 못하게 했던 것은 556마디나 되는 총보를 모조리 외운 지휘자가 있다는 것이다. 로린 마젤(Lorin Maazel)은 그런 행운아 중에 한 명이다. 소리에 의지한 암기법은 처음 작은 부분을 외우기 시작해, 점차 그 부분들을 함께 합쳐서 대단한 노력 없이도 완성할 수 있다.

‘머리를 쓰는’ 암기법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악기를 들기 전 악보에 적힌 음 사이의 관계를 유심히 살피며 곡을 읽고, 이에 대한 전체 계획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곡을 읽는 동안 마음 속에서 운지법과 보잉(bowing)을 상상하고, 프레이징과 다이내믹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 들을 수 있다면 이 암기법은 성공적이다! 촉감을 이용한 암기법은 수많은 연습의 반복에서 비롯되는데, 점차적으로 이 근육의 반사작용은 효율성이 떨어진 채로 흐지부지하게 된다. 근육의 반사 작용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근육이 가진 기억력에 훨씬 웃도는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주입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기 다른 다양한 암기법 중 가장 약하고 믿지 못할 기억법이다. 왜냐하면 약간의 손가락 움직임의 변화 만으로도 기억력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우리가 악보를 외울 때 시도할 수 있는 것들

악보를 배우거나 연습을 시작한 첫날부터 악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보면대를 등 뒤로하고 필요할 때 다시 돌아와보라. 이 순간을 점차 늘리다보면, 악보 뿐 아니라 음악적인 자유와 유연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연주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악보의 질은 집중도 있는 연습인지 아닌지에서 결정된다. 불필요한 일에 집중했다면, 실수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내면의 귀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표현해야 한다. 만일 연주자가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면, 이러한 위험 요소에 집중돼 음악적 내용에서 벗어나 악보를 외우는데 실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렇다면, 악보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일까?

마치 배우들이 특정 배역을 훌린 듯, 실제로 그 인물이 되어 구체화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이 살아 움직이게끔 할 줄 알아야 한다. 러시아 피아니스트인 다닐 트리포노프(Daniil Trifonov)는 이 상태를 파도를 따라가며, 그리고 그 정상에 다다르는 과정을 반복하는, 파도의 정상에 있는 서퍼(Surfer)에 견주었다. 이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감이 자연스레 생기고 악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게 된다고 말이다. 음악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악보로 연주하는 것은 자유로움을 주고, 무대 위 음악가에게 특별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청중과 연주자 사이에는 화면이 없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음악가가 즉흥적으로 창조하는 음악을 청중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어찌됐든 음악을 본인의 악기로 잘 표현해 내야하는 과업을 가진 음악가로서는 연주자 스스로 안심할 수 있게 보면대 위에 악보를 두고 연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돈 크레머(Gidon Kremer)나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Sviatoslav Richter)와 같은 멋진 연주자들을 예를 들자면 언제나 악보를 가지고 연주했고, 이 점이 청중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선택권이 있다면, 악보로 인한 장점이 그로 인한 단점과 비교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만일 두려움이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대신한다면, 악보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